

-수능 영어영역 고난도 유형 학습법-

오르비 승동

2014년 B형은 누군가가 1컷은 100이 될 것이라든가 예측에도 불구하고 결국 1컷 93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B형 응시자가 약 65% 전후였다는 것을 보면 실제 전 인원이 응시했으면 1컷이 90 혹은 그 이하가 될지도 모르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을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5번 문제는 짝수형 기준 약 19%의 정답률이 나오는 엄청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정도 정답률이 B형에서 일어났다면 거의 35번 '사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19%의 수험생만 빈칸추론을 대비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겠지요? 당장 여러분만 해도 빈칸을 준비했을 것이고, 또 본인 친구들도 빈칸추론에 대해서 철저한 훈련을 하였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흐름을 잡기 앞서 평가원에서 제공한 '빈칸 추론 유형' 설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빈칸추론 능력은 글을 읽고 누락된 정보를 글의 내용에 의거하여 추론하는 능력이다. 빈칸에는 단어나 구, 또는 연결어가 올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글의 주제나 요지와 관계가 있거나 주요 세부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함으로써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나 구, 연결어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중략>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추론해야 하는 문항이다. 글의 핵심적인 내용(주제문이나 주요 세부내용)과 글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여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다. 다양한 소재의 글을 대상으로 전체 글을 빠르게 읽어 가면서 글의 중심 내용과 전체적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대입하여 앞뒤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검토해 보는 연습도 효과적이다.

출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방법안내

평가원에서는 빈칸 추론을 훈련하는 법을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지문의 근거를 가지고'

'글의 핵심적인 내용과=주제를 파악하고'

'글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고=정확히 의미적으로 독해해 내고'

'글의 중심 내용과 전체적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정확하게 읽어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빈칸 추론은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하신 분들에게 메리트가 있을꺼라고 평가원에서는 학습 지침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문의 근거를 가지고 추론해내는 연습과, 동시에 '해석'을 정확히 해내는 능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잡혀있는 사람만이 빈칸 추론을 올바르게 훈련했다고 평가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 Check List를 적어볼테니, 반성하실 것은 반성하되 후회는 하지 마시고 추후 영어 영역 때문에 재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명심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등급이 낮는데(약 2~3등급) 빈칸의 논리적 흐름 찾기만 공부하지 않았는가?

9월 평가원 기준으로 1등급은 상관 없습니다만, 2~3 등급이 고난이도 문제를 틀리는 주된 이유는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보다는 일단 '지문이 중간 중간만 해석이 되어서 틀이 맞추어지지 않아' 결국 논리적 흐름을 잡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더 많습니다. 또한 이런 논리를 잡아주는 강의는 강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구문적 훈련에는 덜 할 수 밖에 없고, 학생이 능동적으로 구문을 공부하지 않는 한 구문을 잡기는 힘들어 집니다. 학생이 강의를 듣고 자신은 논리를 키워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런 근거를 잡는 법과 논리적으로 읽는 실력은 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앞에서는 결국 '해석'이 안되어서 근거를 잡고 싶어도 지문이 안 읽히니 잡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해석을 잘 해내지만, 흐름을 잡는데 약한가?

간혹 쪽지로 '구문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빈칸을 맨날 틀려요ㅠ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웬만한것은 다 풀어내지만 결국 35,36과 같은 최고난도 앞에서 흐름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능이라는 긴장감 앞에서는 그 부담이 커져 전체적으로 말려버릴 수도 있고요..

즉 지문의 흐름을 잡아내는 '의미 독해' 연습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문장에 의미가 없는 것은 없으며, 주제는 하나다는 전제 하에 문장의 유기적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할 경우 결국 최고난도 문제를 맞닥트렸을때도 남들이 멘붕할 때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냅니다. **평가원은 분명히 지문의 흐름을 잡는 법을 연습하라고 여러분께 말했습니다.**

3. 스스로 '상상'해서 근거를 잡지 않는가?

빈칸추론은 추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문 안에 있는 내용으로 근거를 잡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평소에 본인이 문제를 풀 때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그러한 딜레마를 잡지 못한 채 수능을 제외한 다른 문제는 틀리면 합리화를 해버리는 학습습관이 있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나서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을테고, 혹은 이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배경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지문을 읽기 전에 정답을 예측해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지문을 보기 전에 구조를 파악하고(사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읽고 나서 파악이 가능한거죠) 구조에 끼워넣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근거를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완벽해 해내려면 위에서 평가원이 공부하라는 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